

아빠의 마음으로, 동화처럼 재미있게

‘경제부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 경제 이야기’ 시리즈

총35권, <한겨레> 구본준·김희승·정남구 기자 공동집필



동화형식으로 써어져 읽으면서 경제활동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한 '경제부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 경제 이야기' 시리즈(전35권).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제부 기자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청소년금융교육협회의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학생 1,011명을 대상으로 소득·화폐관리, 저축·투자, 지출·부채 등 4개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5.2점(100점 만점)의 결과가 나왔다. 화폐분야 이해도는 39.2점으로 가장 낮았다. 차병희 씨는 그의 저서 《돈 맛》에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이 문맹국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혀를 찼다. 신용불량자 230만 명 시대, 그 주류가 2, 30대 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하다.

이는 그 연유를 따져 묻기가 민망할 정도로 충분히 예견된 현실이다. 외국은 이미 4, 5세 때부터 금융이이큐^{FQ}를 높이는 노력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개념조차 생소하다. (주)대연출판의 손경애 주간은 "경제라는 것은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분야로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경제 관념을 가지고 돈을 벌고 쓰느냐 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자연스런 생활 에피소드 통해 경제 개념 전달

'경제부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 경제 이야기' 시리즈는 본권 30권과 <어린이 경제 사전> <초등 교과서와 생생 경제> <용돈 기입장> 등의 부록을 포함 35권으로 구성됐다. 동화작가가 아닌 경제부 기자 출신의 필진이 엮어냈다는 점에서 '경제부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 경제 이야기' 시리즈는 남다르다. 책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씌어졌다. 줄거리 대부분이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끌어낸 소재들이다. 매일 신문제작에 쫓기는 '기자'들이 다보니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출판사가 원고를 받는 데만 예정보다 수개월이 늦춰졌지만 그 내용에서만큼은 여느 경제교육 책을 앞서간다.

<한겨레> 전략기획팀 정남구 기자는 "경제 개념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보다는 인물의 활동이나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감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경제활동이란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어느 정도의 집필이 완성될 때마다 8살인 아이에게 보여주며 소감을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손 주간은 "경제라는 관념을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편집진들은 자신이나 또래 친구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중심이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감정이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작업 내내 고심했다. 책을 읽다보면 일부러 알려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경제의 기초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심부름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리면서는 왜 신용불량자가 생기는지 알 수 있게 했다.

경제인물 파트를 맡아 집필한 사회부 기동취재팀장 구본준 기자 역시 "인물 선정도 쉽지 않았지만 경제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부각시키는 것이 값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김만덕, 코코 샤넬 등을 내세우며 얘기를 들려주듯 써나갔다"고 했다.

어린이 눈높이 맞는 비주얼 디자인...기부문화 등 올바른 경제의식 강조
 특히 디자인 작업에 손이 많이 갔다. 디자인팀의 신달림 대리는
 "전개되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림과 말풍선 등 비주얼적인 정
 보들을 통해 글에서 얻는 것 못지않은 다양한 정보를 주기 위해
 고심했다"며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 것은 책을 여러
 번 봐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한다. 책에는 각
 장마다 주제를 알려주는 제목이 맨 위에 있어 글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라도 제목만 읽으면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집필에 나선 기자들은 논설위원인 김희승 기자와 함께 바
 쁜 일상 중에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저술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서술방식과 소재 등에 관한 역할분담을 비롯한
 공동작업을 어렵게 펼쳐나갔다. 그야말로 '각고'의 연속이었다.
 시리즈에는 2004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방문했을 당시 이번 책의
 기획과 비슷한 수준의 책 판권을 사서 외국저자 글을 번역한 것도
 일부 들어 있다. 이들 네 권의 번역서는 줄거리 자체는 짧지만 주
 식, 카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부문화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
 이 눈에 띄는 것들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기
 부문화를 부각시키기 위해 역사인물 파트를 통해 제목의 사회 환
 원을 실천했던 인물을 소개하기도 했다. 구본준 기자는 최부자집,
 유일한 등 눈에 띄는 기부자들을 선정하는 한편, '백만장자 되기'
 보다 올바른 경제의식을 먼저 알려주는 데 서술의 중점을 두었다.

출간 한 달 만 2판 인쇄...단계별·수준별 어린이 경제학습에 적합

시리즈는 애초 60권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작업을 하면서 손 주간
 을 비롯한 편집자들은 과감히 방향을 틀었다. 쉬운 분야도 아닌데
 몇십 권씩 안겨주는 건 아이에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이유에서
 다. 결국 30권 안에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
 누어 담았다. 신중을 거듭한 노고 때문인지 시리즈는 별다른 광고
 없이 출간 한 달 만에 재판작업에 들어갔다. 부모들도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책이었음을 확연히 한 일이었다.

시중에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방학을 이용해 경제
 학교를 개척하는 곳이 더러 있다. 그러나 적절한 교재나 책이 없
 다. 특히 경제에 관해 단계별로 이해시키고 알려줄 수 있는 책이
 없다. "아이들이 처음 경제를 배우고 익히는 데는 이 시리즈가 적
 합하다"는 게 출판사측 얘기다.

'경제부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 경제 이야기' 시리즈는 활
 용성이 다양하다. 글을 모르는 아이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연령
 대별로 학습 수용이 각기 다름을 감안했다. 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은 그림을 보며 넘기다, 나중에 글을 읽으며 얘기를 따라가
 고, 더 지나면 '팁'을 읽으며 공부하는 등 다단계적인 방법으로 책
 을 활용할 수 있다. 한 번 보고 덮어두는 책이 아닌, 펼쳐볼 때마
 다 새로운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단계별, 수준별 학습이 가능
 하다는 점이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아이들 키우는 심정'으로 제작, '수정·보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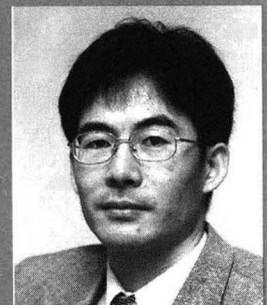
출판사측은 완성본으로 내놓은 데 만족치 않고, 시중의 반응을 보이며
 수정·보완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
 다. 경제에 관한 더 좋은 소재나 인
 물이 있으면 보강할 계획이다. 손
 주간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작업했
 지만 책을 내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더 크게 보이는 법"이라고 말했다.

"아이들 책은 특히 더 그렇
 습니다. 내가 만들고 기획한 것이 아
 이들의 사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작업이죠. '아이
 들이 이 책을 읽고 생각이 어떻게 바
 꾸고, 나중에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이를 현실로
 도출해 내려 합니다. 아이들을 움직
 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 주간은 아이들 책의 가
 장 중요한 요건을 '재미와 그림', 두
 가지로 꼽는다. '보여지는 것'에 집
 중하는 요즘 아이들의 변화가 책을
 만들 때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야기 구조는 단순화시키면서 그 안
 에서 정보가 되는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책을 기획할 때
 의 일차적인 목표다.

디자인팀의 신 대리는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할까를 항상 염두하며 작
 업 했다"며 "그러나 시간에 쫓기다보니 그림 교정을 더 많이 보지
 못한 게 아쉽지만 기대 이상 호응을 받으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경제부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 경제 이야기' 시리즈는 동
 화, 명화 등 기존 대형기획물이 다루던 주제에서 탈피, 정체된 대
 형기획물시장을 깨우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새로운
 시도다. (주)대연출판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력을 더욱 확장시킬
 계획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이들, 가령 남을 때리면 그것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생각하게 하는 행동을 길러주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지
 금의 아이들에게 절여되고 있는 것을 채워주려는 의도다. ☐



(위에서부터)

김희승·전남구·구본준 기자